■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53-560.
http://doi.org/10.17948/kcs.2023..100.553

『여와시집선(餘窩詩集選)』 해제

박희인(朴姬寅)*

1. 기본정보

- **판　　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발행처불명], [헌종-철종연간(1834-1863)]
- **형태사항** 2卷1冊: 四周單邊 半郭 20.3×12.8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28.2×18.2 cm
- **주기사항** 表題: 餘窩詩選
  印: 在山樓蒐書之一
- **현 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4-340

2. 안내정보

여와(餘窩) 목만중(睦萬中, 1727-1810)의 시 작품 중 일부를 뽑아 엮은 시선집이다. 250제(題) 287수(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3. 편저자 사항

본서의 저자 여와 목만중은 조선 후기 남인(南人) 문사로, 본관은 사천(泗川),

* 고려대 강사.

자는 유선(幼選)이며, 여와는 호이다. 1759년(영조35) 문과 급제하였으나 서인 정권하에서 중용되지 못하자 사직하고 오랫동안 칩거하였다. 이때 채제공, 정범조, 신광수 등 남인 문사들과 시회(詩會)를 여는 등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 1786년(정조10) 60세의 나이로 문과 중시(重試)에 수석 합격하여 돈녕부 도정, 태천 현감, 병조 참의 등을 지냈고, 동부승지에 특제되기도 했다. 관직은 정2품 지중추부사까지 올랐으며, 연로한 고관의 예우를 받아 기로소(耆老所)에 들었다. 목만중은 만년에 일부 남인 소장파들이 서학(西學)에 경도되자 강하게 비판한 공서파(攻西派)로 분류된다.

4. 구성 및 내용

본서의 표제는 '여와시선(餘窩詩選)'이며, 권수제(卷首題)에는 '여와시집선(餘窩詩集選)'으로 되어 있다. 목만중의 전체 작품은 시 2,600여 수, 문 300여 편 정도로 조사되는데 본서는 그중 시 250제 287수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시 작품의 10% 정도이다.



〈그림 1〉『여와시선』 표지

본서의 전체 분량은 표지 포함 74장이며 1~44장이 권1, 45~74장이 권2로 편차되어 있다. 목만중은 자신의 시를 시기별로 별도의 시집으로 엮고 첫머리에

간략한 설명을 붙여놓았는데 본서 역시 이러한 체제를 따르고 있다. 『여와시집선』의 구성을 시집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여와시집선』의 구성

권차	시집명	창작년도	나이	내용	작품 수	페이지[1]
권1	童游錄	1738-1762	12세~36세	12세~출사기까지 작품	4	2
	關南錄	1762-1763	36세~37세	함경도 이원 유배 시 작품	10	3
	歸歟錄	1763-1765	37세~39세	해배 후 작품	14	4
	劒城錄	1765-1769	39세~43세	비인현감 재임 시 작품	4	8
	採芹錄	1770-1775	44세~49세	근동 거주 시 작품	6	8
	東征錄	1773	47세	금강산 유람 시 작품	28	10
	關西記行	1775	49세	관서 유람 시 작품	11	15
	白社錄	1776-1787	50세~61세	야동 거주 시 작품	60	17
	寧朔編	1787-1789	61세~63세	태천현감 재임 시 작품	9	29
	沔陽錄	1790	64세	면양 유배 시 작품	4	31
	美芹續錄	1790-1797	64세~71세	해배 후 다시 근동 거주 시 작품	34	32
권2	從心錄	1798-1803	72세~77세	70대 작품	37	45
	櫟社錄	1804-1810	78세~84세	78세부터 몰년까지 작품	66	53

『동유록(童遊錄)』은 유년기와 청년기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12세 때 아버지와 교유가 있었던 하정(芐亭) 이덕주(李德胄)와 수창한 시와, 참신한 시선이 돋보이는 영물시 「眼境」 등이 수록되어 있다.

『관남록(關南錄)』은 출사 초기 함경도 이원(利原)에 유배되었을 당시 작품이다. 그중 「次秦州雜詩」는 두보가 기근을 피해 진주에서 머물던 시기에 지은 시를 차운한 것이다. 원래 총 20수의 연작시로 본서에는 그중 5수가 수록되어 있다. 『귀여록(歸歟錄)』은 이원에서 해배된 이후 작품을 수록한 것이다. 여기에 송도(松都)를 유람하며 지은 『숭유록(崧遊錄)』을 부록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14수 중 12수가 송도 유람시로 『귀여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 제시한 페이지 수는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여와시집선』 이미지의 면수이다.

『검성록(劍城錄)』은 비인 현감(庇仁縣監) 재직 시기 작품이다. 목만중은 이 당시 관로에 한계를 느끼고 사직한 후 오랫동안 칩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복잡한 내면을 읊은 작품보다는 지방관의 임무와 여유를 담은 시 및 증별시가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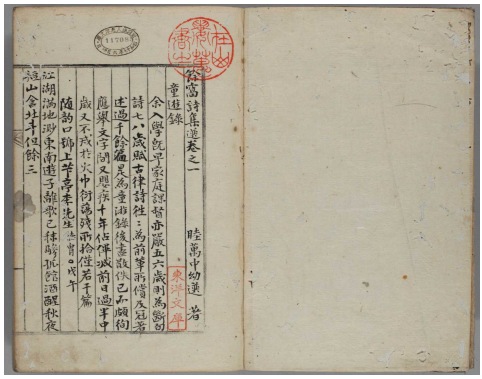
『채근록(採芹錄)』은 사직 후 한양 반송방(盤松坊) 근동(芹洞) 거주 시기 작품이다. 그중 「惠還以律見投效體奉酬」는 혜환 이용휴와 수창한 것으로 총 8수 중 4수가 수록되어 있다.

『동정록(東征錄)』과 『관서기행(關西記行)』은 시기적으로는 『채근록』에 속하지만 각각 금강산과 관서 지역 유람시를 별도로 편차한 것이다. 다만 『동정록』 총 28수 중 7수만 금강산 유람시이고 나머지는 유람 이후의 작품으로, 동정(東征) 이후의 작품도 『동정록』에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칩거 생활 중 채제공과 시회를 즐기며 지은 작품 등이 포함된다. 『관서기행』은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던 채제공, 차사원 성대중과 함께 북쪽 국경 지역을 유람한 기록이다.

『백사록(白社錄)』은 관서 유람에서 돌아와 야동(冶洞)에 거주할 때 작품이다. 야동이 한양의 서쪽 서대문 근방이었으므로 서방의 색인 흰색을 따서 '백사'라 이름 붙였다. 『백사록』은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백사 시기가 기간이 길고 작품 수도 많으므로 여타 판본에서 여러 권에 걸쳐 수록하고 있는 점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삭편(寧朔編)』은 목만중이 60세에 중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복귀한 뒤 태천 현감(泰川縣監)에 재임하던 시기 작품이며, 『면양록(沔陽錄)』은 충청도 면양에 유배되었을 당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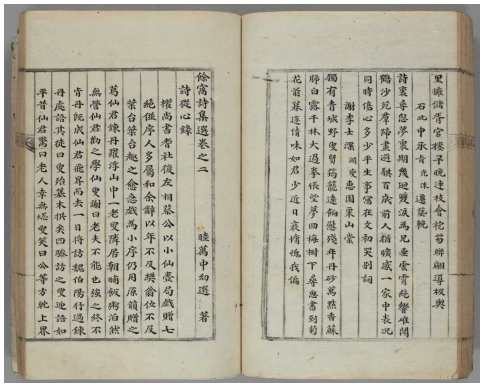
『미근속록(美芹續錄)』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근동에 거주할 때 작품이다. 역시 다른 시기에 비해 분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상,하로 나누어 놓았다. 그중 「猛虎行」은 사나운 호랑이에 빗대어 당시의 학정(虐政)을 풍자한 악부가행(樂府歌行)이다. 또한 「震澤輓」은 진택 신광하에 대한 만시를 장편고시 형식으로 지은 것이다.



〈그림 2〉 권지일

『종심록(從心錄)』 70대 노년의 작품으로 공자가 70세에 자신의 경지를 일컬은 "從心所欲不踰矩"에서 따왔다. 『종심록』에는 주변 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시가 많은데, 교류가 친밀했던 채제공, 홍수보, 이정운뿐 아니라 동생 목황중과 정조에 대한 만시 등이 있다. 또 서학 유입에 대한 우려를 담은 「述感更疊」도 수록되어 있다.

『역사록(櫟社錄)』의 "櫟社"는 『장자』에 나오는 쓸모없기 때문에 베어지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사당의 상수리나무를 가리키는데, 세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재로서 장수를 누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다. 다양한 형식의 잡체시(雜體詩)와 각종 사물의 늙음을 읊은 '노(老)' 연작 14수가 있다. 『여와시집선』은 노년기 작품 비중이 높은데 특히 『역사록』의 경우 해당 기간에 비해 많은 분량의 시를 선별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3〉 권지이

5. 서지적 가치

본서는 가장 최근에 새로 발견된 목만중 문집 필사본으로, 기존 판본에 없는 자술 기록과 작품 다수를 수록하고 있다. 목만중 문집은 시고와 문고를 통틀어 간본(刊本)이 없고 제각기 다른 형태의 필사본으로 존재한다. 『여와시집선』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저작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23권12책, 청구기호: K4-6267]
②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10권5책, 청구기호: 한貴古朝45-가152]
③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본[22권10책, 청구기호: 아연 D1 A3803]
④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24권12책, 청구기호: 고서(귀)461 0]
⑤ 개인 소장본[5권5책]
⑥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17권9책, 청구기호: 古 3436-20]
⑦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2권1책, 청구기호: Ⅶ-4-340]

이중 ①~④는 문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⑥은 문고로 산문 작품만 수록하고 있고 ⑤, ⑦은 선집이다. 그러나 문집의 형태를 갖춘 판본 역시 모든 작품을 완벽하게 수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이나 선별 과정에서 빠진 작품이 많다. 또한 선집이라 하더라도 완정한 특정 판본에서 작품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서 경로 미상의 미발견 작품이 다수 발견된다. 본서 역시 여타 판본에 없는 기록과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목만중 작품 연구를 위해서는 판본 간 비교 대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여와시집선』은 비록 분량이 많지 않지만 대조 및 교감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6. 내용적 가치

『여와시집선』에는 기존 자료를 보완할 자술 기록과 새로 발굴된 작품 12수가 수록되어 있다. 목만중은 자신의 시를 시기별로 별도의 시집으로 엮으면서 권두에 각 시집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곤 했다. 그런데 본서의 『동유록』 권두 설명은 기존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어려서부터 시를

많이 지었으나 화재로 인해 다수 망실되었다는 전반적인 내용은 같지만 본서의 설명이 조금 더 상세하다. 두 자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童游錄者, 自戊午始至弱冠. 余七八歲則解爲五七言律絶, 所作頗富. 中歲不戒於火, 晩始拾取燼餘, 僅若干篇. 附以中年作漏於草藁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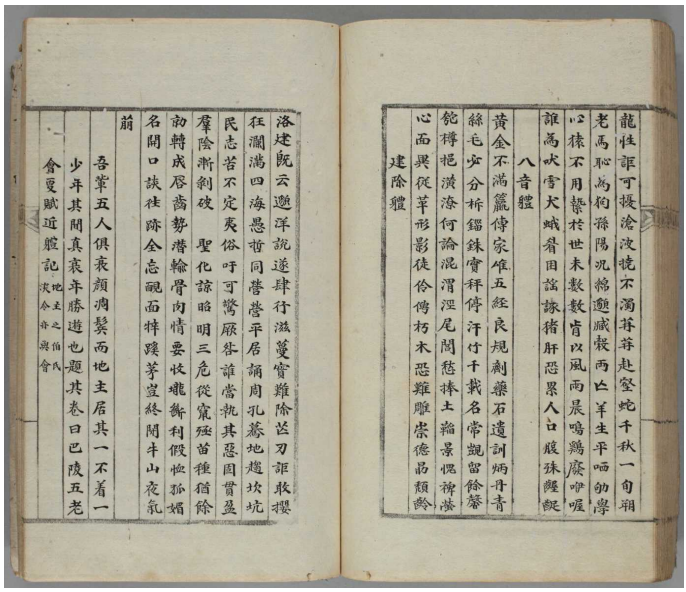
> 余入學旣早, 家庭課督亦嚴, 五六歲則爲斷句詩, 七八歲賦古律詩, 往往爲前輩所償, 及冠著述過千餘篇, 是爲童游錄. 後盡散佚已, 而頗徇應擧文字間, 又嬰疾十年, 佔俾減前日過半. 中歲又不戒於火, 巾衍蕩殘, 所拾僅若干篇.

이외에도 본서에는 기존 판본에 없는 새로운 작품이 12수 발견된다. 새로 발굴된 작품은 대체로 노년기 작품이다. 또한 다수의 잡체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목만중이 1808년에 잡명시를 창작한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바이나[2] 1805년에도 잡체시를 창작한 사실은 본서를 통해 새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서를 통해 새로 발굴한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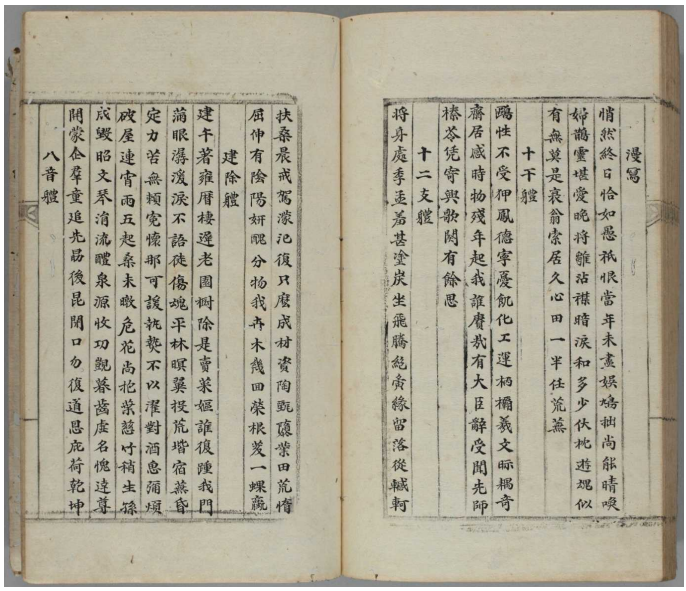
〈표 2〉 신발굴 작품 목록

권차	시집명	제목	창작년도	페이지
1	採芹錄	奉次金灘權進士(九範)壽席韻	미상	11
2	白社錄	李公會見過	1784	28
3	櫟社錄	洪子直喪耦後, 重値委禽舊甲, 有詩述感, 和贈	1804	54
4		十二辰演雅體	1805	57
5		八音體	1805	58
6		建除體	1805	58
7		漫寫	미상	61
8		十干體	1808	61
9		十二支體	1808	61
10		建除體	1808	61
11		五色體	1808	62
12		十二辰體	1808	62

2) 이새롬, 「목만중(睦萬中) 노년기 시의 특징 소고: 역사록을 중심으로」, 『한국학』 37(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264면.



〈그림 4〉 신발굴 잡체시



〈그림 5〉 신발굴 잡체시